



鄭 官 謨
한국美協 이사장
誠信여대 산업대학원장

예술작품 설치로 아름다운 서울을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람살 곳 아니라는 표현을 흔히 하고 있다.

그 요인 중에서 우선적으로 과밀한 인구문제를 들 수 있겠다. 이른바 다운 타운이라 일컫는 종로쪽에 들어서면 어떻게 이리도 사람이 많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리를 메우고 있다. 서울에는 한국 전체인구의 사분의 일이 모여 산다고 한다.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인구 많은 대도시이다.

다음은 교통지옥이다. 도시계획이전에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해온 서울을 이제와서 부분적으로 도로확장을 한다고 교통문제가 해결될리는 없다. 결코 차량 보유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교통정책이 아쉬운 것이다.

대도시일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코어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야하고 그 코어 형성은 사람들의 용무나 관심이 끌리는 마크네트에 의거 하건만 서울의 여건은 중구나 종로쪽의 도심지에 모두 모여 있으니 아무리 사람들 보고 흠어지라거나 도심지 출입을 억제한다 해도 성과가 있을리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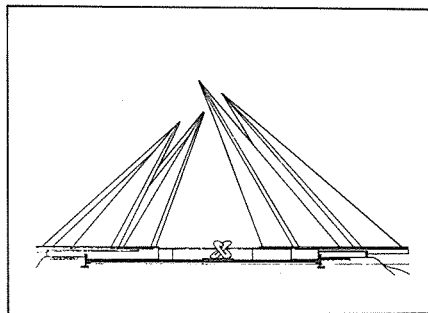
다음은 대기오염이다. 자동차 나라라고 말하는 미국의 어느 대도시와 비교해 보아도 서울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맨하탄의 복잡한 대로변에서도 심호흡이 가능하지만 매연과 먼지로 뒤섞인 종로 거리에서 심호흡이란 생각할 수가 없다.

이쯤의 몇가지 예만 들어보아도 서울은 심각한 도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서울을 사랑한다. 내가 한국인이니까 그 어느 부유한 외

국도시에서 걸만 번지르하게 사는 것보다 제나라에서 사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 만으로 내가 서울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서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울러 서울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오늘의 서울은 명실공히 국제도시로 손실없이 성장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에서 로얄 발레단도 보았고 카라얀이나 올만디, 번스타인의 지휘도 보



았다. 이제 올림픽도 서울에서 한다 세계의 정상과 국제적인 모든 것들을 서울에서 경험해 볼 수 있으니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여의도의 「대한빌딩 63」은 나의 관심을 사로 잡는다. 그 건물의 디자인이 마치 심플한 탐신갈기도 하고 미니멀 조각 같기도 해서 나를 매혹하고 있는 것 이외로도 그것은 서울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으며 오늘의 국력을 읽어 볼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들이 곳곳에 건립되고 있어 도시면모를 바꾸어 가고 있다.

잘 사는 나라, 앞서가는 나라의 도시에서 오래전부터 공공건물 건축비의 1 퍼센트는 예술작품 구입비로 지출시켜 크고 좋은 미술품으로 건물내외를 장식토록 해왔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도시 분위기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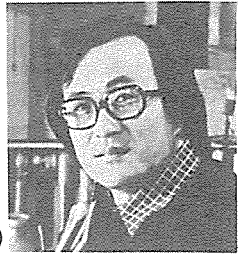
한국은 그 법을 문예진흥법 13조에서 권장사항으로 실시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한해서만 의무조항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 건축중인 큰 건물들은 하나 둘씩 조각 또는 회화작품으로 실내외를 장식하고 있다.

아마도 몇년 후의 서울은 어디가나 몇 있는 현대조각이나 회화작품을 감상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문화민족다운 도시면모를 보여 줄 수 있을 줄 안다.

여기에서 한가지 서로가 신경을 써야 될 문제는 예술작품 설치에 있어서 정말 예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는 상식문제이다. 조각이든 회화이든 건물의 디자인과 공간 그리고 용도에 어울리는 작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설계자나 예술작품제작자의 안목은 무시되고 건물주의 무지한 기호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설계를 맡은 건축사들은 설계당시부터 자기작품에 어울릴 수 있는 미술품을 구상하고 그 미술가에게 제작 의뢰하는 적극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록 인구, 공해, 교통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한 모퉁이씩 예술작품 설치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街路樹 관리사처럼



李 圭 鮮
이화여대 교수(등양화)

지난해 여름 몇평안되는 집을 증축하면서도 건축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건물의 외양이 멋있어야함은 물론 내부의 設計까지도 주어진 지리적 환경과 기후적 조건에 많은 영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建築의 기초상식조차 없는 나로서 감히 건축전문가들이 세워놓은 건축의 좋고 나쁨을 가린다는 것이 상식밖의 일이라 생각되어 그림을 그리는 한 사람으로서 보고 느낀 몇가지만을 적어 보려 한다.

로마에 展示會 관계로 여행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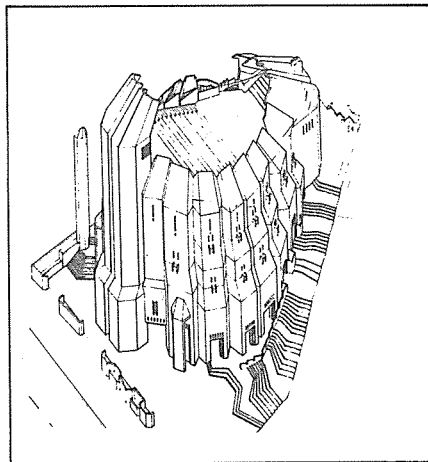
길가 의자에 앉아 한참동안 가로수를 올려보고 있다가, 나무로 올라가 작은 나무가지를 잘라내고 내려와 또 올려다보곤 머리를 가우뚱거리며 다시 올라가 또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자르는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다. 안내인에게 물어본즉 로마시내엔 지역을 나누어 건물의 특성이나 주위환경에 맞추어 가로수의 가치를 자른다는 것이다.

가지사이로 보이는 멋진 풍경을 한 畫家가 좋은 構圖를 창출하듯 가지를 가려 잘라 어느 쪽에서 보든 아름다운 한쪽의 그림처럼 나무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다.

가로수가 자라면 톱으로 밀동만을 남기고 잘려버리는 우리 실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다. 나무가지 하나 하나 자르는데 이토록 심사숙고하는 이들이 건물을 짓는데는 얼마나 熱과 誠意를 다 했겠는가 생각하니 오늘에 로마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남을 것 같다.

로마뿐만 아니고, 파리 등 많은 도시들이 情感이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구라파 여행을 하고 돌아온 화가들이면 누구나 하는 말이 “인상파때 유명화가들의 풍경화는 창작이 아니라 실경 그대로 옮겨 그린거더군!” 하고 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작가가 실경을 그대로 옮겨 그려도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질만큼 도시환경이 예술적이요,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잘 어울린다는 뜻이다.



오래전 서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은 한결같이 어지럽다는 것이다. 마구 붙은 간판, 조화를 못이룬 건물의 형태나 색채들, 모든 것이 못마땅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요즘엔 그렇지 않은 않다. 간판도 많이 정리되어 가고 멋진 건물도 많이 세워지고 있다.

건물의 외양이나 내부시설이 외국의 좋은 건물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다. 건물주위의 조화도 놀랄만큼 달라졌고 전에는 없던 조각작품

들이 놓여지고 실내에는 벽화들이 걸리고 바닥에는 번쩍 번쩍하는 이태리산 대리석이 깔려 호화롭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나는 이 멋진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이런 건물은 몇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워지는 건물마다 다투어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장식을 한다면 국고의 낭비는 물론, 건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이나 한국적 멋을 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직업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태리 대리석으로 정교하게 만든 조각작품보다 한국산 화강암으로 툭툭 쳐서 만든 작품이 더 정감이 가기 때문이다.

화강암으로 툭툭 쳐서 만든 조각작품처럼, 한국의 참맛을 살린 건물만이 영원한 우리의 건물이 될 것이다.

또 한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서울의 도시계획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양의 최대니, 최고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서울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선 고층건물의 신축은 서울 외곽에다 세우고 시내엔 가능하면 주위경관을 어디서나 관망할 수 있도록, 한국적 멋을 살린 높지않은 건물을 세우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며, 가뜩이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효과도 얻게 되지 않을까?

한국의 멋이 숨쉬는 도시, 우리 것을 보여 주고 자랑할 수 있는 서울을, 나무가지를 하나 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생각하여 자르는 가로수 관리사처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